

고삐풀린 환율 ... 물가 비상

美 구제금융 법안 통과 불구 외환시장 요동 금리마저 급등 ... 中企·서민가계 '한계상황'

미국의 금융위기가 구제금융 법안에 대한 미 정부와 의회의 합의로 고비를 넘길 것이라는 기대감이 퍼지고 있지만 외환시장은 안정을 찾지 못한 채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면서 우리 경제를 어렵게 몰아치고 있다.

◇ 환율 폭등, 물가에 직격탄 = 미국의 대규모 구제금융 계획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무역수지와 경상수지의 적자 우려로 29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200원을 돌파하는 등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국제유가가 최근 배럴당 100달러 밑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인 상황에서 환율 급등은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이는 가계의 실질소득 감소와 내수 위축, 경기 둔화를 이끈다.

한은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 오르면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0.1% 상승한다.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1% 상승할 때 소비자물가가 0.02% 오르는 것에 비해서 환율이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이다.

무역수지도 올 들어 8월까지 115억7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9월에도 적자 행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환율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8월 수입물가는 국제유가 하락에 힘입어 전달보다 4.4% 하락했지만 환율 급등으로 이 추세를 유지할지 불투명해졌다.

수입물가가 될 경우 최근 상승 폭이 둔화되고 있는 소비자물가도 불안해진다. 8월 소비자물가는 5.6% 오르며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 범위(2.5~3.5%)를 이미 큰 폭으로 웃돌고 있는데 환율 급등이 물가를 더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환율 상승은 당장 수출 경기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겠지만 소비와 투자 등 거시경제 전체적으로는 악영향을 클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적인 불경기로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어려워져 경제성장률이 3%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 中企·가계 "갈수록 특신" = 환율과 금리 급등으로 중소기업들과 가계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수입 비용의 상승과 내수 부진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들은 키코 거래로 8월 말 현재 1조2천억 원대의 평가손실을 입는데 이어 환율 상승으로 그 피해가 갈



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평가손실이 1천억 원 씩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들은 이에 따라 흑자자산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는 물론 금리마저 뛰면서 서민을 중심으로 가계는 '한계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환율이 오르면서 해외로 자녀를 유학보낸 '기러기 아빠'들의 부담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연협뉴스

■은행권, 대출금리 7년만에 최고 수준 폭등 왜? 韓銀 기준금리 인상 여파 CD·대출금리 곧바로 영향

은행 대출금리가 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어 오른 것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양도성에급증서금리와 예금은행의 대출금리에 곧바로 영향을 줬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은행들이 대출을 축소하고 있는데 비교적 높은 금리의 학자금 등이 대출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중 예금은행의 대출 평균금리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전월대비 0.19% 포인트 상승한 연 7.31%를 기록했는데 7년만에 최고치다.

분야별로 보면, 가계 대출금리는 연 7.35%로 전월의 7.12%에 비해 0.23%포인트 상승하면서 2001년 9월의 7.55%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6.92%에서 7.16%로 0.24%포인트 상승하면서 관련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1년 9월 이후 가장 높았다.

기업대출금리는 7.30%로 전월의 7.12%에 비해 0.18%포인트 올라갔다. 대기업 금리는 6.66%에서 6.86%로, 중소기업 금리는 7.30%에서 7.50%로 각각 뛰었다. 운전자금 금리는 0.19%포인트 상승한 7.29%, 시설자금 금리는 0.08%포인트 오른 7.48%였다. 저축성 수신평균 금리는 연 5.91%로 전월의 5.67%에 비해 0.24%포인트 올라갔다.

정기예금 금리는 5.55%에서 5.77%로 0.22%포인트, 정기적금 금리는 4.76%에서 4.99%로 0.23%포



인트 각각 상승했다.

시장형 금융상품의 평균금리는 6.10%로 전월의 5.84%에 비해 0.26%포인트 올라갔다.

CD금리는 5.73%에서 6.02%로, 한미조건부채권(RP) 금리는 5.45%에서 5.57%로 각각 상승했다.

김경화 한은 금융통계팀 차장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양도성에급증서(CD) 금리를 끌어올렸고 이는 곧바로 예금은행의 대출금리에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대출금리 상승에는 은행들이 대출을 축소하고 있는 데다 비교적 높은 금리의 학자금이 많이 대출된 데 따른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신청 급증

광주·전남 7월 전후 1,200여가구 쏟아져 업체 자금난 심화 ... 380가구만 사들일듯

지방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업체의 미분양주택 매입 신청과 정부의 매입 가구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전남은 지난 7월을 전후로 총 1천200여가구의 미분양주택 매입신청이 잇따르는 등 업계의 자금사정이 '한계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29일 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올 들어 정부가 매입한 지방 미분양주택은 2천26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의 올해 매입목표(5천여가구)의 40% 수준으로, 지방 분양시장 침체의 여파로 매입 신청건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은 최근 미분양주택 매입 신청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그

동안 광주·전남에서 주택공사에 매입을 신청한 미분양주택이 상반기에 단 한 가구도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업계의 분위기가 180도 달라진 셈이다.

실제 광주·전남의 경우 이날 현재 주택공사에 매입을 신청한 미분양주택이 1천 189가구에 달한다. 광주는 매입을 신청한 275가구(2개 단지) 가운데 A아파트 180여가구가 주공과 가격협상을 벌이고 있다. 전남은 최근 매입을 신청한 1천3가구(3개 단지)에 대한 임대수요평가를 실시한 결과 목포 B아파트 200여가구가 통과됐다. 이 아파트는 가격협상과 매입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향후 주공의 임대주택으로 활용된다.

이처럼 광주·전남의 매입 신청이 급증한 것은 최근 지역 건설업계의 자금사정이 '한계 상황'에 봉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장기적인 분양시장 침체에 따른 자금경색으로 인해 지역 업체들이 '올머 겨지머기' 식으로 아파트를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역 업체들은 주공의 미분양주택 매입 금액이 분양보다 20~30% 낮은 점에서 신청률이 극히 저조했으나 7월 이후 급증세로 돌아섰다.

한편 주공은 지난 26일부터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4차 매입 신청을 받고 있다. 매입 대상은 준공 후 미분양주택과 올해 말 준공예정인 미분양주택 등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컬러풀한 '라이더 재킷' 광주신세계 백화점은 29일 다양한 컬러와 캐주얼한 라인인 돋보이는 '라이더 재킷'을 선보였다. 판매가는 79만9천원. <광주신세계 제공>

삼성경제연구소 "민간소비 부진 내년까지 지속"

민간소비를 둘러싼 불리한 여건들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워 민간소비의 부진이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9일 '최근 소비동향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민간소비의 부진은 물가급등과 고용창출력 약화,

금융·부동산 등 자산가치 하락 등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여건들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새 정부의 성장지향 정책이 효과를 내고 불리한 대외여건이 안정을 되찾는 내년 이후쯤 소비가 회복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협뉴스

국내 기업 70% "美 금융위기 확산 우려"

전경련 600대 기업 조사

국내 기업들의 70% 가량은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국제금융위기로 확산되거나 실물경제의 장기침체로 발전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국내 매출액 상위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미국발 금융위기의 향후 전개방향을 묻는 질문에 45.6%가 '글로벌 실물경제 침체로 발전할 것'이라고 답했고 25.0%는 '국제금융위기로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만간 진정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전체의 29.4%에 그쳤다.

최근의 금융불안 상황이 하반기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82.4%의 기업이 '직접적 영향은 없으나 부분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

고 '심각한 영향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한 업체도 12.4%에 달했다.

금융 소크의 파급영향이 큰 부문을 고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중폭증답을 전제로 '내수침체로 인한 매출차질(82.7%)', '국내 자금조달 계획의 차질(72.9%)', '미국 수출 차질(66.1%)', '국내의 금융투자 손실(61.7%)', '해외자금조달 계획 차질(61.4%)' 등 순으로 답했다.

국내 금융사 등을 이용하는 기업들의 자금경색 조짐도 나타났다. 조사대상 기업들은 최근 자금조달 여건과 관련해 67.8%가 '조달금리 상승 등 부분적 경색이 있다'는 반응을 보였고 '자금조달 자체가 어려운 심각한 상황'이라는 응답도 13.9%에 달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대책을 묻는 문항에는 '환율 안정화 정책'이라는 대답이 46.4%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협뉴스

도심 재건축·재개발 내달부터 규제 푼다

10월에는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재건축·재개발 관련규제와 수도권을 억눌러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침이 발표될 전망이다.

2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 규제를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8·21대책을 통해 이미 안전진단 완화, 후분양제 폐지,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등의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추가로 풀 규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재건축과 관련해 남은 규제는 소형주택의무비율과 임대주택의무비율, 그리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장치 등이다.

정부는 초과이익환수는 강화하면서 소형 및 임대비율은 완화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형주택의무비율은 전체 가구의 60%이상을 85

미이로, 임대주택의무비율은 증가한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각각 짓도록 하는 규제이다.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초기에 폐지한 기반시설부담금제와 8.21대책에 따른 후분양제 폐지 및 조합원지위양도허용 등 이미 취해진 조치가 부동산시장을 불안하게 할 가능성을 심도있게 보고 있다. 국토부는 심각한 '재건축 발(發) 시장불안'이 없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규제완화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소형주택의무비율과 관련해 업계는 참여정부에서 60%로 높이기 이전인 20%로 복귀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40%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임대주택의무비율도 완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 이 또한 손질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도심에서의 임대주택은 늘리지 않는 게 정부 방침인 것을 고려하면 지역적으로 차별화하는 방안 등이 유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8.21대책을 통해 밝혔던 후분양제 폐지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연협뉴스



박광대 광주시장(왼쪽 네 번째)과 송기진 광주은행장(세 번째)은 29일 홍콩의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도이치은행 등 세계 유수의 은행 관계자들과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시·光銀 - 세계 유수 은행 5곳

'개발 프로젝트·금융 협력' 의향서

광주시와 광주은행은 29일 홍콩에서 세계 유수의 은행 5곳과 '광주시 개발 프로젝트 협력' 및 '광주은행 외환 및 국제금융업무 협력' 등을 위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이번 행사에는 도이치은행과 ING은행, 와코비은행, 나틱시스은행, 칼리온은행 등이 참여했다.

광주시와 광주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이들 은행과의 협력 및

거래관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광주시의 '2008년 중화권 투자유치 활동'의 주요행사로 꼽힌다"며 "광주은행도 향후 추가로 5천만불의 외화 차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함께 일합시다

업 제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동원건설(주)	건설회사 경리 직원	고졸/경력1년	1400~1600	10/02	062-228-1254
기아자동차 광주제일대리점(주)	자동차 카 매니저/자동차 판매(신인/경력/주부가능)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02	062-574-8011
영진시스템	기술지원팀/영업팀/관리팀 정규직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03	062-383-1108
ING생명(본사)	[하반기-남,여]상담원공채/저축성상품	고졸/경력무관	3000~3200	10/06	02-3452-2612
(주)가도건설	건축공무/경리/총무 여직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06	062-385-9949
(주)한국아이티	나주시청 DB구축(전산인력) 아르바이트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06	017-604-0758
(주)인텔서비스	LG텔레콤 서부고객센터 상담사(정규직)	고졸/경력무관	1800~2000	10/07	062-601-7213
(주)광주은행	정규직 대출 행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07	062-239-5703
(주)상오정밀	사출관련 생산관리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10/08	062-955-2900
이엔건설(주)	본사관리직-조경기사(여)/현장직-수질환경기사(남)	대졸/경력무관	1600~1800	10/08	062-268-1500
보라고양이	여성의류소품용 보라고양이 웹디자이너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08	062-233-8982
해원에스타(주)	인사총무 경력 및 신입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08	062-958-7031
(주)풍원개발	미화원4명(광주금남로소재)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10	032-967-2451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공짜폰' 조심하세요

방통위 폐해 경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전화에 가입할때 무료로 받는 '공짜폰'의 폐해를 경고하고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이동전화 대리점 등이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당연히 할인되는 금액을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안내해 이용자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실제 방통위 CS센터(지역번호 없이 1335)에 올해 9월 15일까지 접수된 관련 민원이 400여건에 이른다.

연협뉴스